

2008 NHERI 리포트 제32호 (2008. 12. 22)

작 성 : 신재근 수석연구원(02-6399-5937)

zegni@nonghyup.com

감 수 : 전찬익 정책연구실장(02-6399-5962)

cic5630@yahoo.co.kr

본 자료는 일본 農林中金総合研究所의
「農林金融」 2008년 11월호에 실린
“農家構造の変化と農協組織(迫られる次
世代対応)”을 번역·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 목 차 ■

<요 약>

I. 머리말	1
II.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추이	1
III. 지역별·지대별 농업경영자	6
IV. 농업경영자와 농협 정조합원의 연령 구성	10
V. 시사점	19

< 요약 >

농가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전후의 일본 농업을 지탱해 온 쇼와(昭和)한자리수 세대¹⁾ 농업인들의 이농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약 40%가 70세 이상이어서, 고령 농업인의 이농이 농가 감소로 이어지면 그 영향이 커지게 된다.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이농이 농가의 감소로 곧바로 연결될 지는 다음 세대의 존재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를 중심으로 차세대층이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구로서 존속이 가능하다.

더욱이 차세대와 농업과의 관계를 판매농가 농업경영자의 연령별 비율로 보면, 2005년 현재 50대와 70세 이상의 농업경영자 수가 양립하고 있다. 다만, 차세대 농업경영자의 대부분은 겸업 종사자로 보인다.

이 두 세대가 농업경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이나 지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것은 경영규모의 차이나 농업자연금의 수급에 따른 경영 이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농협의 정조합원과 농업경영자의 연령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조합원은 고령자에 편중되어 있어 차세대 대응이 긴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조합원은 경영규모가 작은 자급적 농가나 토지소유 비농가도 포함되지만 이들 세대는 농지 유통화나 보전에 대한 공헌이 크므로, 다음 세대로의 적절한 농업승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쇼와 한자리수 세대를 포함한 고령층으로부터 차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농협은 이미 경영을 승계하고 있는 차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잠재적인 차세대 농업인의 조직화나 영농지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역자주 : 쇼와(昭和)란 일본의 연호로 1926년부터 1989년까지를 말하며 쇼와 한자리수 세대란 2005년 기준으로 70대를 가르킨다.

I. 머리말

농가의 고령화, 특히 지금까지 일본 농업을 지지해 온 70세 이상의 쇼와 한자리수 세대가 영농으로부터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농업 생산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쇼와 한자리수 세대는 농업 뿐만 아니라 농협의 조직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지지해 온 세대이기도 하다. 70세 이상의 농업인들의 농업 은퇴에 따른 농업경영의 승계 및 농협의 조직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농업이나 농협조직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 된다.

본고에서는 쇼와 한자리수 세대를 포함한 고령층과 그 다음 세대간의 세대교체에 초점을 두고, 농림수산성 「농림업 센서스」(이하 「센서스」라고 한다)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시에 농협 조직기반과의 관계,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추이

1. 농가인구로 본 쇼와시대 한자리수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여기에서는 농가로서의 승계 가능성 및 후계자 확보라는 측면에서 농가인구 전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이것은 농가의 승계나 후계자 확보의 전제가 되는 세대원이 어느 정도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표 1>은 농가 인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을 보면 2005년 농가인구는 1995년의 1,508만명에서 1,134만명으로 375만명 감소되었으며, 이중 판매농가의 농가인구는 1,204만명에서 837만명으로 367만명 감소하였다. 또한 농가인구의 연령 구성을 보면 고령자의 비율이 상승하여 2005년에는 쇼와 한자리수 세대가 포함된 70세 이상의 비율이 1995년의 15.7%에서 24.1%에까지 높아졌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동시에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도 진행되어 2005년에는 기간적 농업종사자 중에서 7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농가인구 추이

(단위 : 만명, %)

구 분	1995 (A)	2000 (B)	2005 (C)	증 감	
				C-A	C-B
총농가세대원수	1,508	1,346	1,134	△375	△212
판매농가세대원수	1,204	1,047	837	△367	△210
50대 비율	12.3	12.5	15.2	2.9	2.7
65세이상 비율	24.1	28.0	31.6	7.5	3.6
70세이상 비율	15.7	19.7	24.1	8.4	4.4
기간적농업종사자수	256	240	224	△32	△16
50대 비율	20.2	16.7	17.1	△3.1	0.4
65세이상 비율	39.7	51.2	57.4	17.7	6.3
70세이상 비율	19.8	31.1	39.9	20.2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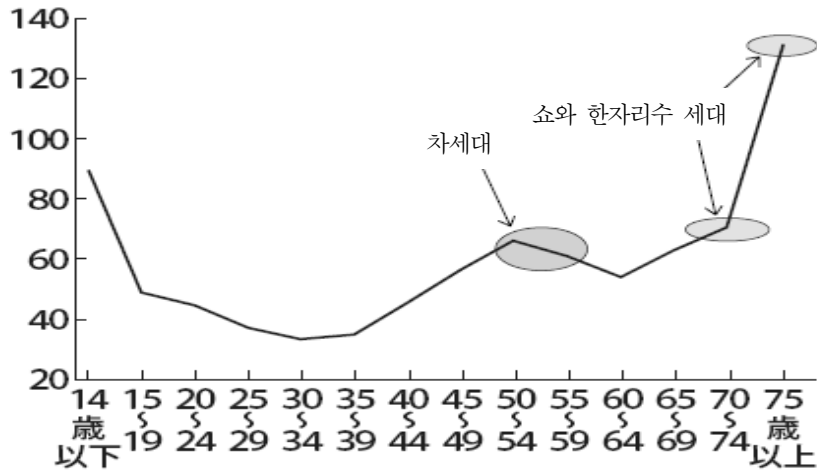
역자주 : 판매농가란 경영 경지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50만 원 이상인 농가이며,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농업취업인구중 농업이 주업인 세대원을 의미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이와 같이 농가인구·농업노동력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농가 중에서 고령층의 후계자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세 이상 외에도 농가인구가 상당수 증가하는 연령 계층이 있다. 50대 전반의 연령층이다. 이 세대는 쇼와 한자리수 세대보다 20~30세 정도 젊은 계층이며, 쇼와 한자리수 세대의 자녀들 계층인 것으로 보인다.²⁾ 또 50대 전반 다음으로 많은 층은 전후 세대(전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대 후반의 계층이다. 이 계층은 일본 전체를 보면 인원수가 가장 많은 계층이지만 도시지역으로 유출된 수가 많아 농가인구에 있어서는 50대 전반을 하회하고 있다.

2) 40대 후반의 계층도 쇼와 한자리수 세대의 자녀 계층이라 여겨지지만, 그 총 수가 50대 후반 이하와 40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상 50대만을 차세대로 하였다.

〈그림 1〉 연령별 농가인구 추이(판매농가, 2005년)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이 양쪽 계층을 합한 50대의 인구는 2005년 농가인구 전체의 15.2%를 차지하여 70세 이상 인구의 약 60% (남성은 약 80%)에 상당한다. 이와 같이 쇼와 한자리수 세대 다음으로 농가인구가 많은 50대 계층이(쇼와 한자리수 세대 이농 후의 농가) 농업을 지지하는 존재가 된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2005년 센서스에서 50대 층을 쇼와 한자리수 세대 이상 고령층의 「차세대」로서 분석하고자 한다.³⁾ 2005년도 현재 50대 중심의 차세대가 농업경영자로서 또한 농업종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농업경영자 · 농업종사자로서의 차세대

〈표 2〉는 판매농가에서의 농업경영자, 농업종사자, 농업취업 인구,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실수와 그 구성비를 본 것이다. 각각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업경영자는 「남녀에 관계없이 그 농업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농업경영자는 호당 한명씩으로 판매농가

3) 일본의 농가 인구에서는 쇼와 한자리수 세대와 50대라는 2개의 봉우리가 보이지만, 전후 주니어 세대(2005년 기준 30세 전반층)에 해당하는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쇼와 한자리수의 세대의 다음 다음 세대가 농가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와 일치하는 196만명이 된다. 또 종사일수 등 외형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급적 농가나 토지소유 비농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 2> 연령별 농업경영자수 및 비율(판매농가)

(단위 : 만명, %)

구 분		합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남성
실 수	농업경영자	196	0	4	24	56	54	53	59	54
	농업종사자	556	47	44	84	119	65	112	150	76
	농업취업인구	335	19	12	24	48	19	88	143	72
	기간적농업종사자	224	4	7	18	38	19	67	89	52
구 성 비	농업경영자	100	0.2	2.1	12.4	28.3	27.3	27.1	29.9	27.4
	농업종사자	100	8.4	8.0	15.2	21.4	11.6	20.2	26.9	13.7
	농업취업인구	100	5.8	3.7	7.2	14.3	5.8	26.3	42.7	21.4
	기간적농업종사자	100	1.7	3.3	8.1	17.1	8.3	30.0	39.9	23.3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다음으로 농업경영자 이외의 구분은 농업에의 취업상황에 따른 구분이다. 우선, 농업종사자는 자영농업에 종사한 세대원으로서 범위가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농업취업인구는 농업종사자중 자영농업에 주로 종사한 세대원이다. 마지막으로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농업취업인구 중 농업이 주업인 세대이고, 전업(專業) 경향이 가장 강한 농업인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세대원의 취업상태 구분

구 분		일에의 종사상황		
		농업에만 종사	농업과 그 외의 일 모두에 종사	
			농업이 주	기타 업무가 주
보통의 주된상태	주로 일	기간적농업종사자 농업취업인구		농업 종사자
	가사·육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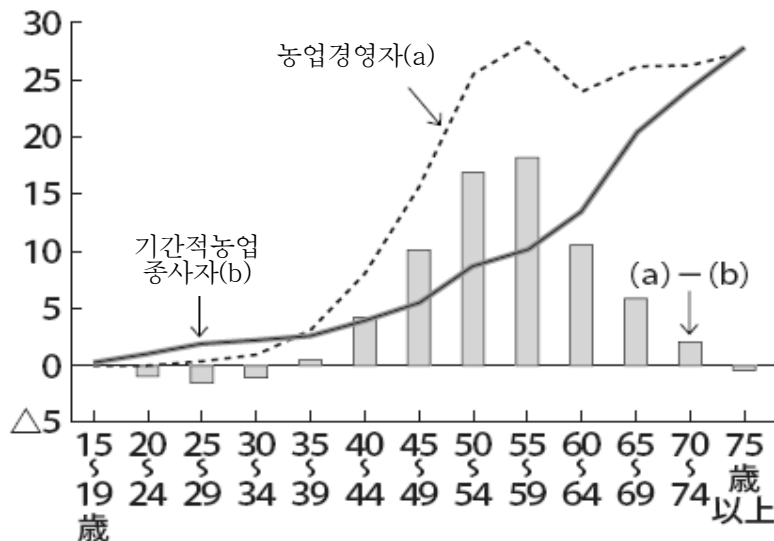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앞의 <표 2>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농업경영자 중에 50대는 56만명으로 농업경영자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것은 쇼와 한자리수 세대를 포함한 70세 이상의 농업 경영자 59만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양립하고 있다. 또, 50대 농업경영자의 성별을 보면 56만명 중에 남성이 54만명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 후계자가 농업경영자가 되고 있는 것도 엿볼 수 있다.

농업경영자의 90% 이상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 남성만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자와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50대의 농업경영자 수는 같은 계층의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정의상 자영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크게 상회하는 부분은 적어도 자영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지 않은 농업경영자를 의미한다.

<그림 3> 연령별 농업경영자기간적농업종사자(남성,판매농가)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이와 같이 쇼와시대 한자리수 세대를 포함한 70세 이상 층에서 50대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로의 세대교체는 겸업농가 위주이긴 하나 일정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농가의 존속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단, 이상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전국을 일률적으로 봤을 경우이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농업경영자의 세대교체는 지역·지대 등의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다음에서 이러한 세대교체의 지역·지대별로 본 특징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지역별 · 지대별 농업경영자

- 차세대 농업경영자의 유무와 그 배경 -

우선, 농업지역별로 남성 농업경영자의 연령별 비율을 본 것이 <표 3>이다.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50대의 남성 농업경영자 비율은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 가장 높은 지역은 토호쿠(東北)로 34.0%이며, 홋카이도(北海道) 33.8%, 호쿠리쿠(北陸) 30.3% 순이다. 이 3개 지역만이 30%를 넘고 있다. 한편, 가장 낮은 지역은 추오쿠(中国)로 25.3%, 이하 토카이(東海) 25.7%, 킨기(近畿), 시코쿠(四国) 27.2% 순이다.

<표 3> 지역별 남성 농업경영자의 연령 구성비(판매농가)

(단위 : 만명, %)

구분	실수	구 성 비							
		합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a)	60대	70세 이상 (b)	(a)-(b)
전국	186	100	0.2	2.2	12.7	28.9	27.1	29.0	△0.1
홋카이도	5	100	0.5	7.3	22.5	33.8	22.0	13.9	19.9
토호쿠	35	100	0.2	2.2	15.8	34.0	26.0	21.9	12.1
칸토·토산	39	100	0.1	1.9	12.0	28.3	27.3	30.3	△2.1
호쿠리쿠	15	100	0.2	2.1	12.6	30.3	28.1	26.7	3.6
토카이	17	100	0.1	1.8	10.1	25.7	28.3	34.0	△8.3
킨기	17	100	0.2	2.1	11.0	27.2	27.5	32.0	△4.8
추오쿠	17	100	0.1	1.2	8.5	25.3	27.4	37.4	△12.1
시코쿠	11	100	0.1	1.7	9.9	27.2	27.4	33.6	△6.4
큐슈·오키나와	29	100	0.2	2.4	14.1	27.7	27.0	28.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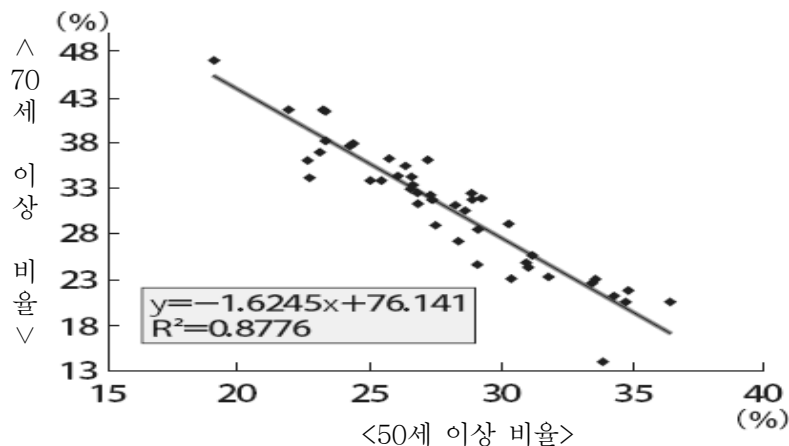
주 : 진한 부분은 30%를 넘는 지역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더욱이 <표 3>에서 50대의 차세대층과 70세 이상의 비율의 격차를 계산해 보면 홋카이도(北海道)와 같이 50대의 비율이 70세 이상의 비율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상회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추고쿠(中国)와 같이 12포인트나 하회하는 지역도 있다.

도도부현별로 남성 농업경영자중에서 50대와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관계를 본 것이 <그림 4>이다. 70세 이상의 비율이 낮은 도도부현에서 50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도도부현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 50대로의 세대교체의 진행 방법이 지역별·도도부현별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50대 및 70세 이상 남성 농업경영자 비율(도도부현, 판매농가)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여기에서 2005년 센서스의 시정촌별 남성 농업경영자 수를 농림중금총합연구소의 독자적인 지대구분에 의해 다시 집계한 것이 <표 4>이다.⁴⁾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홋카이도(北海道)의 농가구조가 특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부현만으로 집계하고 있다.

4) 농림중금총합연구소의 독자적인 지대구분은, 시정촌을 특정시, 중핵도시, 도시적 농촌, 농촌, 과소지역의 5가지 지대로 구분함. 특정시는 「특정시가화 구역농지」를 가진 시, 과소지역은 「과소지역활성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시정촌」. 상기에 해당되는 시정촌을 제외한 중핵도시는 현청소재지 또는 인구가 20만명 이상, 도시적 농촌은 인구 3~20만명, 농촌은 3만명 미만. 구분이 되는 계수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2005년 센서스 시정촌에 맞추어 일부를 수정함. 또한 농협에 적용할 때에는 농협 관내에 복수의 시정촌이 포함될 경우 보다 큰 경제규모에 대응하는 구분을 채용 (특정시, 중핵도시, 도시적 농촌, 농촌, 과소지역의 순서로).

<표 4> 지대별 남성 농업경영자의 연령별 구성비(도부현, 판매농가)

(단위 :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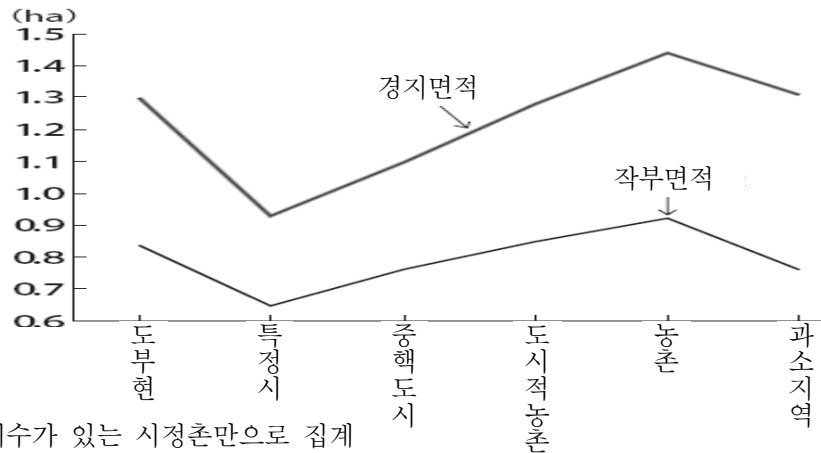
구분	실수	구 성 비							
		합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a)	60대	70세 이상 (b)	(a)-(b)
도부현	181	100	0.2	2.0	12.4	28.8	27.2	29.4	△0.7
특정시	12	100	0.1	1.6	9.4	25.9	28.1	34.9	△9.0
중핵도시	17	100	0.1	1.5	10.2	26.7	28.1	33.3	△6.6
도시적농촌	59	100	0.1	1.9	11.8	28.6	27.6	29.9	△1.3
농촌	59	100	0.2	2.3	13.9	30.5	26.7	26.5	4.0
과소지역	33	100	0.2	2.1	13.1	28.3	26.5	29.8	△1.6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표 4>와 같이 남성 농업경영자가 차지하는 50대의 비율은 도시부(都市部)의 「특정시」, 「중핵도시」에서 낮고, 농촌부(農村部)의 「도시적 농촌」, 「농촌」 지역에서는 높아진다. 또, 50대와 70세 이상의 비율의 격차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는 「특정시」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중핵도시」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농촌」에서는 50대가 70세 이상을 상회하여 「도시적 농촌」에서도 그 차이는 작다. 이와 같이 지대별 농업경영자의 연령비율에서 도시부(都市部)과 농촌부(農村部)에서 대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별로 본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방법이 상이한 이유 중의 하나로서 도시부(都市部)과 농촌부(農村部) 농가구조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그림 5>는 지대별 호당 경영 경지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농촌부(農村部)에서는 경영규모가 도시부(都市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농업인의 농업노동의 부담이나 농업 투자의 금액도 커, 고령자로서는 영농의 지속이 어려워진다. 또 경영 규모가 큰 농촌부(農村部)에서는 농업자연금 가입자도 많아 수급에 따른 경영이양의 건수도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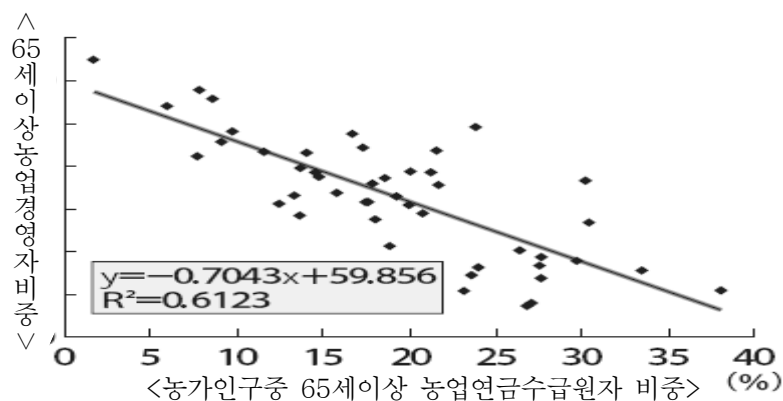
<그림 5> 지대별 호당 경영경지면적·작부면적(도부현, 판매농가)



주 : 계수가 있는 시정촌만으로 집계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그림 6>은 65세 이상 농가인구 중에서 농업자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와 65세 이상의 농업경영자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농업경영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겸업기회가 적어 겸업소득의존도도 낮고,⁵⁾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차세대로 농업 경영의 승계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6> 판매농가 농업경영자 중 65세 이상 비율과 65세 이상 농가인구 중 농업자연금 수급권자 수(65세이상) 비율(도부현)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자연금기금 「2005년도」

5) 지대에 의한 지역경제에서 농업의존도의 차이는 『농림금융』 2006.11 타다 키오 「지역의 사회·경제환경과 농협의 수지·재무 구조」 참조

한편, <그림 5>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시부(都市部)에서는 농촌부(農村部)에 비해 경영 경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농업노동이나 농업투자의 부담이 적고, 고령이 되어서도 상당한 기간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더욱이 도시부(都市部)에서는 농업자연금 수급에 따른 경영이양의 건수도 적다고 볼 수 있어 차세대의 겸업도 안정적인 고용이 많아 농업 경영이 승계되는 비율이 농촌부(農村部)에 비해 낮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판매농가에서의 농업경영자의 세대교체는 지역·지대에 의한 농가·농업 생산구조의 차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대교체의 상황은 농가·농업을 조직기반으로 하는 농협 조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판매농가에서의 세대교체와 농협 조직기반의 세대교체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IV. 농업경영자와 농협 정조합원의 연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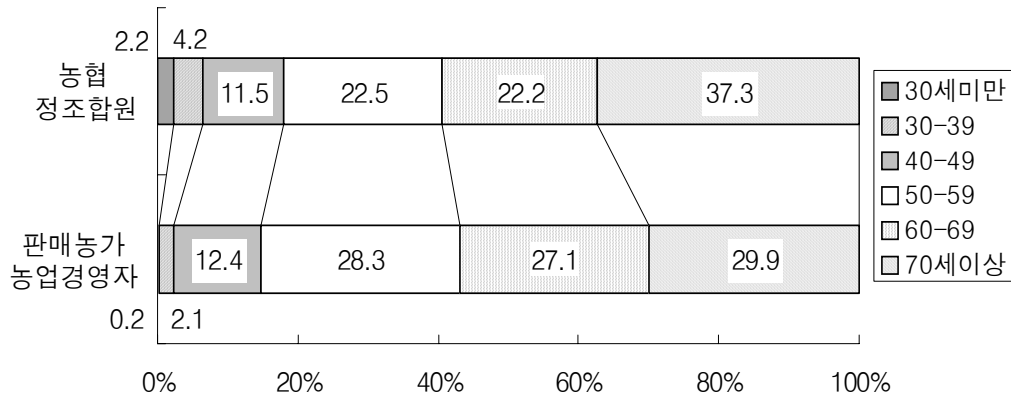
1. 농업경영자와 농협 정조합원의 연령 구성

농업인의 세대교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농협의 정조합원의 연령구성이다. 특히 종래의 농협의 조직·사업 활동을 지지해 온 쇼와 한자리수 세대의 정조합원에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림 7>은 농림중금총합연구소가 실시한 「2005년 제 2회 농협신용사업동향조사」(샘플조사)에서의 농협의 정조합원의 연령 구성비(337개의 농협 집계)를 판매농가에서의 농업경영자의 연령구성비와 비교한 것이다(농협신용사업동향조사는 2005년 11월에 실시, 농업센서스는 2005년 2월에 실시). 연령별 조합원 수는 실수에 의한 회답이 아니고 비율에서의 회답이므로 그 회답비율을 정조합원수에 곱한 후 가중평균하여 비율을 산출했다.

<그림 7>을 보면, 농협의 정조합원은 농업경영자에 비해 70세 이상의 고령층에 치우치고 있어 (37.3%), 그 다음 세대인 50대(22.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조합원의 연령구성과 농업경영자의 연령구성에는 큰 차이가 있어, 적어도 2005년도에는 판매농가의 농업경영자에 비해 농협의 정조합원에서는 쇼와 한자리수 세대를 포함한 70세 이상의 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농협 정조합원 및 판매농가 농업경영자 연령 구성비



주 : 정조합원은 집계된 337농협의 가중평균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중총연 「농협신용사업동향조사 2005년도 제2회」

여기에서 농협의 정조합원에는 판매농가 이외에 농업을 경영하는 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판매농가 이외에 영농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세대는 센서스 상에서 자급적 농가·토지소유비농가이다⁶⁾

6) 농가와 토지소유비농가의 정의

판매농가 (경영경지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円 이상인 세대)
자급적농가 (경영경지면적이 10~30a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15만~50만円 세대)
토지소유비농가 (경영경지면적이 10a 미만이며 농산물 판매금액이 15만円 미만으로 경지 및 경작 포기지를 합해 5a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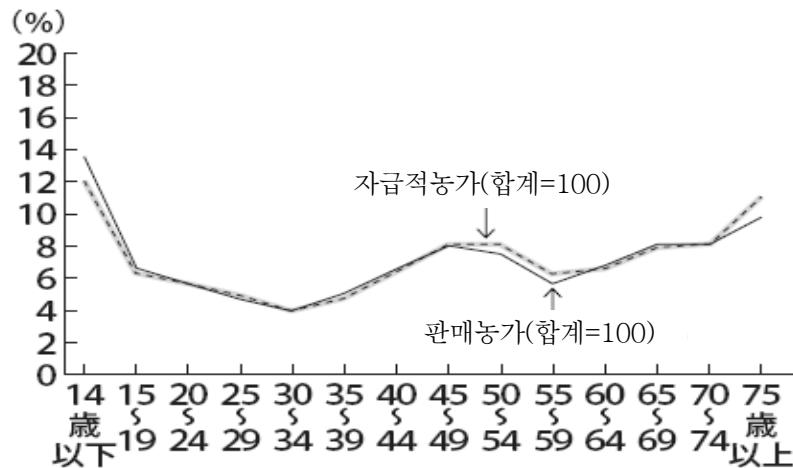
주 : 진한 부분이 농가

자료 : 농림수산성 「2005년 세계농림업센서스」

예를 들어 2005년도의 정조합원 호수는 435만호인데 판매농가 196만호에 자급적 농가 88만호, 토지소유비농가 120만호를 더하면 405만호가 되어, 정조합원호수와 비슷한 숫자가 된다.

그 때문에 자급적 농가나 토지소유 비농가의 세대원이 고령층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면 정조합원과 농업경영자의 연령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2000년도에는 판매농가와 자급적 농가의 남성 세대원의 연령구성이 <그림 8>에서 나타난 것처럼 극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 또, 동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판매농가와 같이 자급적 농가에게도 쇼와 한자리수 세대의 다음 세대의 봉우리(2000년 시점에서는 45~54세)가 있어, 농업경영을 승계하는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토지소유 비농가는 농가로부터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고려하면,⁷⁾ 농협의 조직기반도 농가인구와 비슷한 연령구성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8> 판매농가·자급적농가의 농가인구 연령 구성비(남성,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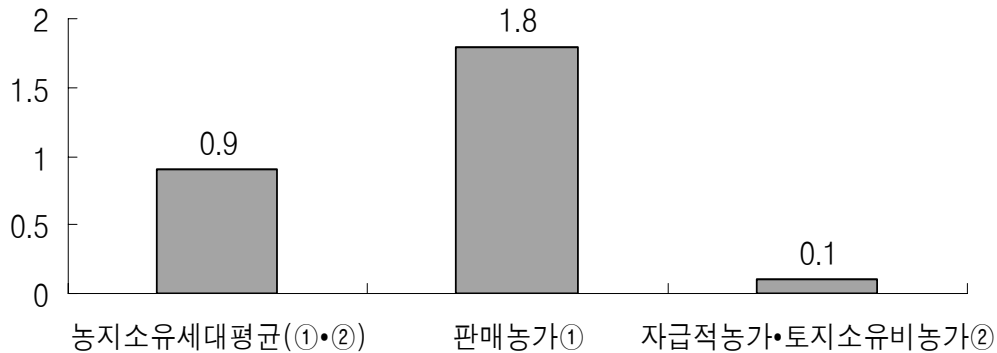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이와 같이 정조합원 세대와 농지소유 세대의 연령구성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정조합원과 판매농가 농업경영자의 연령구성 격차의 배경 중

7) 『농림금융』 2002. 2월호 키오 「농가 이외의 농지 소유세대에 보는 일본 농업의 구조 변화」 참조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판매농가와 자급적농가·토지소유비농가의 경영규모의 차이이다.⁸⁾ 실제로 자급적 농가와 토지소유 비농가의 경영 경지면적은 판매농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판매농가의 호당 경영 경지면적 1.8ha에 비해 자급적 농가와 토지소유 비농가는 0.1ha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들 세대를 포함한 많은 정조합원의 평균 경영규모도 판매농가를 크게 하회하게 된다.

<그림 9> 호당 경영경지면적(전국)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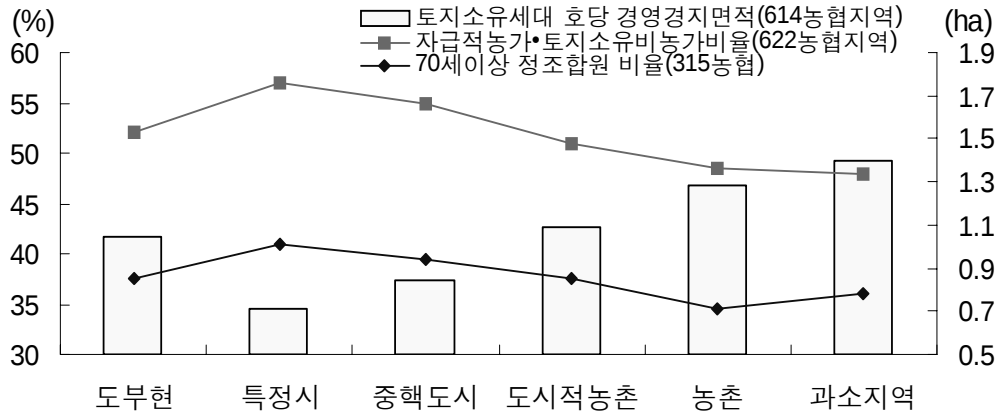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업경영자는 경영규모가 작은 도시부(都市部)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조합원도 경영규모(농지소유세대 호당 평균 경영 경지면적)⁹⁾가 작은 도시부(都市部)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⁰⁾. (그림 10) 지역별로 정조합원의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과 농지소유세대 호당 경영규모의 관계를 봐도 같은 형태이다. (그림 11)

8) 여성 정조합원의 고령화의 영향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2005년 정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그쳐 그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생각된다.

9) 농지 소유세대 1호당 평균경영경지 면적은 농가와 토지소유비농가의 경영경지 면적을 계산해 농가와 토지소유 비농가의 합계호수로 나눈 것.

10) 시정촌 데이터를 농협지역으로 바꾸는 작업 및 지대구분의 적용작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거론한(주4)의 『농림금융』 2006.11논문참조. 여기서는 수도부와 현의 센서스 데이터를 전국 622곳의 농협지역구분(경영경지는 614곳)으로 바꿔 집계하여, 지대구분 별도로 재집계하였다. 622곳의 농협지역구분은 시정촌 데이터와 1대 1로 대응되도록 복수농협을 하나의 농협지역이라고 하였으며, 농협신용사업 동향조사의 조사대상농협과는 엄밀하게는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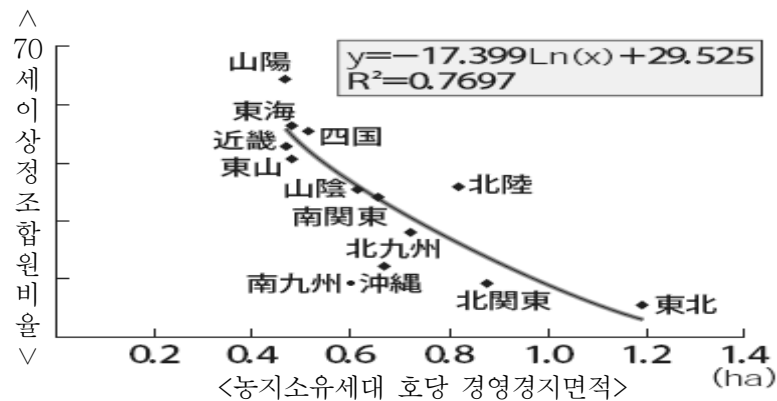
<그림 10> 지대별 정조합원의 70세이상 비율과 호당 경영경지면적



주 : 자급적농가·토지소유비농가 비율은 판매농가·자급적농가·토지소유비농가 합계에 대한 비율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그림 11> 지역별 정조합원의 70세이상 비율과 농지소유세대 호당 경영경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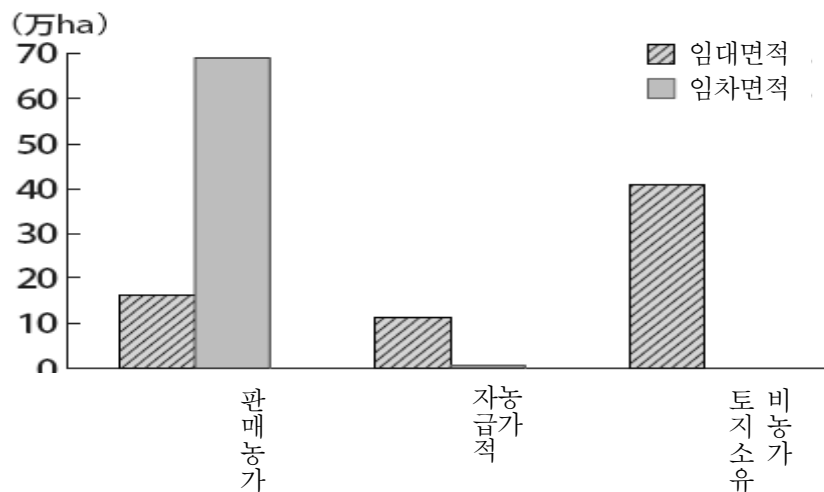
주 : 호당 경영경지면적은, 판매 농가, 자급적 농가, 토지소유비농가의 경영경지면적 합계를 호수 합계로 나눈 것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이와 같이 정조합원과 판매농가 농업경영자의 연령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농협의 조직기반에는 판매농가에 비해 경영규모가 작은 농업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고령이 되어도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세대교체의 비율도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조합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급적 농가나 토지소유 비농가는 농지의 공급자나 취락의 영농활동의 주체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급적 농가와 토지소유비농가의 농지 소유면적을 비교해 보면, 센서스에서 산출한 농지 소유면적합계 414만ha¹¹⁾ 가운데 94만ha를 차지하는 동시에, 그 소유농지의 과반수인 52만ha를 임대하고 있다.(그림 12) 이것은 판매농가의 임차면적 69만ha 가운데 70% 이상에 해당한다. 또, 집락조직에 의한 농로나 농업수리시설의 관리 등에도 이들 세대는 불가결한 존재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림 12> 농지소유주체별 농지임대·임차면적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가진 자급적 농가, 토지소유 비농가의 농업승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작포기지의 확대나 집락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로도 연결될지 모른다. 그 경우 단순히 농협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농협계통으로서 정조합원의 세대교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11) 『농림금융』 2007.10월호, 타다 키오 「농지의 소유구조의 변화와 토지소유비농가의 동향」 참조

2. 차세대의 농업경영 승계에 대한 농협의 대응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농협 조직기반에는 판매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규모가 작은 자급적 농가나 토지소유비농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고령이 될 때까지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정조합원이 많아 다음 세대로의 세대교체 비율도 판매농가를 하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조합원 중에 소규모 경영이 많다고 해도 그들 정조합원도 농지 소유세대로서 농지의 유동화나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세대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농협 계통에 있어서 정조합원이 다음 세대로 농업승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진행할 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나타나듯이, 판매농가에게는 쇼와 한자리수 세대를 포함한 70세이상 계층으로부터 50대를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도 지역·지대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농협의 조직기반에 포함되는 자급적 농가와 토지소유 비농가는 그 경영규모가 더욱 작고, 부모 세대가 농업에 주로 종사하여, 그 다음 세대는 보완적으로밖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현재의 농업환경의 어려움으로 볼 때, 다음 세대의 농업승계가 종래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승계를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정조합원으로 건재한 동안에 다음 세대들과 농업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농업 승계자인 차세대들 또한 농협 정조합원이 되어, 영농지도 사업을 비롯하여 농협의 사업이용이나 조직활동에 참가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¹²⁾ 이는 장래 농지상속 등 농지의 이익활용(자산 관리를 포함하여)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도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12) 거의 모든 농협에서 1호당 복수정조합원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여성 정조합원의 증가가 주목적이며, 2005년에는 1호당 남성 정조합원 수는 0.96명으로 1명을 밑돌고 있다.

더욱이 차세대의 조직화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장래적으로는 다음 세대가 승계한 영농활동을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급적 농가·토지소유비농가가 농업을 이어 받는 경우는 판매농가에 비해 농업에 관한 경험·지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 24회 JA 전국대회에서도, 「소규모농가·겸업농가, 고령자·정년귀농자나 신규취업농업인 등의 다양한 농업인에의 지원」이 결의되었다. 자급적 농가·토지소유 비농가의 차세대 대응은 이러한 다양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 속에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영농지도 뿐만 아니라 농사일에 대해서도 지역농업의 유지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 출자형 농업생산법인이 지원하는 형식도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조합원 확대 운동을 추진한 농협에서는, 차세대의 정조합원 가입에 반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작년 필자가 방문한 충고쿠(中国) 지방의 농협에서는 정조합원의 감소에 대한 위기감으로 2005년도부터 조합원 확대 운동에 몰두하여, 특히 젊은 남성의 정조합원이 늘어나는 등 착실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농협으로서는 농촌부(農村部)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 확대의 여지는 적은 것은 아닐까라고 당초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성과는 예상외였다고 한다. 신규 가입자 중에서는 특히 40대 이하의 남성이 많아, 농협은 『젊은 세대가 농협을 떠난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것은 선입견으로 지나지 않고, 젊은 세대로의 전환에 지금까지 농협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작년에 방문한 칸토우(關東)지방의 농협에서도 농업인조합원의 확보를 위해서 조합원자격 승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합원 가입 촉진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나 U턴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강의를 개최하는 등 정년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영농지도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세대교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들 농협처럼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또, 차세대의 조직화나 그에 대응되는 영농지도 체제의 구축과 함께 농협계통에 있어서 여성 농업경영자의 증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번 분석대상인 판매농가에서, 차세대인 50대의 농업경영자 56만명 중에 남성이 54만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50대의 기간적 농업종사자에서는 38만명 중에 여성이 20만명으로 남성을 역전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로서, 겸업을 주로 하는 남성이 농업경영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농협계통에서도 JA대회 결의에서 「고령자나 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인의 육성」을 표방하고 있고, 또 여성 정조합원을 전체의 25%까지, 총대(總代)에 대해서도 1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어 농협운영에 대한 여성참가 촉진에 적극적이나, 이와 더불어 여성의 농업경영 참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여성의 농업경영의 참가에 대해서는 농업개량보급사업과의 제휴도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보급지도센터는 가족경영협정 체결의 추진이나 농촌 여성의 창업활동의 지원 등에 의해 농촌 여성의 사회참여·경영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과의 제휴도 보급활동의 전국적인 방향을 제시한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운영에 관한 지침(2004년)」에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판매농가의 농업경영자 세대교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다음다음 세대로의 세대교체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경영에 대한 여성의 참가를 진행하는 것은 후대의 농업승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여지므로 농협계통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V. 시사점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쇼와 한자리수 세대의 이농 후에도, 적어도 가계로서 승계하는 다음 세대들이 농협의 조직기반에는 존재하지만, 소규모경영도 많이 포함된 정조합원 세대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일정한 경영규모가 있는 농가를 하회하고 있다.

농지나 취락활동을 통해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는 소규모 경영 세대가, 농업인이 아니고 단지 가계로서의 세대교체에 그치면, 지역의 농업 생산활동에 큰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 때문에 농협계통은 행정·보급지도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면서 잠재적 농업승계자인 차세대 세대원에 대해서 정조합원화 등의 장려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의해 지역의 농업 생산기반과 농협의 조직기반의 유지의 양립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